

평창

서경태 | IAEA 핵물질보장조치 사찰관



강원도하면 감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나 대관령 목장이 생각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설악산이나 태백산, 치악산 등 한국의 높은 산들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머릿속에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나 평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특히 평창은 두 번에 걸친 동계 올림픽 후보지로서 지난 5, 6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진 이름이기도 하다.

사실 필자에게 강원도는 지긋지긋한 군대 생활을 한 곳이라는 것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도 메밀꽃이 0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 채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을 그냥 기억하고 있을 뿐이고, 대관령 목장도 고랭지 채소를 재배한다는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알고 있고, 어느 우유 회사의 우유팩에 그려진 점박이 소의 배경 정도로만 이해할 뿐이다. 그래서 평창이 동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면서 첫 번째 유치에 실패했다는 사실도 꽤 나중에야 알 정도로 별 관심이 없었다.

유럽에 잘 알려진 평창

그런데 지난 번의 두 번째 유치를 위한 홍보전은 상당히 대단했던 것 같다. 첫 번째 때 아쉽게 실패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CNN이나 EURO SPORT 등에서 평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필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특히 필자가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쾰스부르그를 경쟁 상대로 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졸업
한국전력공사 근무(1984~1994)
IAEA 근무(1995~)

썰스부르그는 몇 년 전부터 해마다 겨울이면 스키를 타기 위해 방문하고 있고, 여름에도 가끔씩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다. 그런데 한국의 평창이 썰스부르그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한다니? 이 소식만으로도 필자는 발전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평창이 올림픽위원회 위원들에게 썰스부르그보다도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필자에게는 설마? 하는 느낌이 들도록 충격적인 것이었다.

필자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동계 스포츠는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정도였지 다른 종목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일부 종목에서 몇몇 개인들이 가끔 이름을 올려놓기는 했으나 그것도 중, 하위권에 머물렀을 뿐이다.

한국에 있을 때 강원도나 경기도 등지에 있는 스키장을 한 번씩은 가 보았으나, 스키를 빌리는 데 두어 시간씩 소요되고 리프트를 타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숙박 시설과 비싼 요금 등 필자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장소였다는 기억만 남아 있다.

실내 아이스링크도 1970년대 동대문 실내 아이스링크와 그 후 롯데월드 아이스링크, 목동 아이스링크 정도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실내 아이스링크는 가본 적이 없고 동대문야구장에 천막을 친 후 물을 뿌려 만든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탄 기억이 있다).

동계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에 못지않게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다.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피겨 스케이팅 등 실내 경기를 위한 실내 아이스링크가 기본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실내 경기만큼 실외 경기도 많다 보니 그에 따른 실외 경기장도 필요한 것이 많다. 스키 활강을 위한 스키장은 기본이고 스키 점프를 위한 점프대, 봅 슬레이나루지 등을 위한 시설, 바이에슬론이나 노르딕 크로스 컨츄리를 위해 수 킬로 미터에서 수십 킬로 미터에 이르는 눈밭 등도 필요하며 최근에는 스키를 이용하거나 스노우보드를 이용하여 곡예에 가까운 묘기를 보이는 경기들도 생겨나 이를 위한 경기장도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 외적으로도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다. 선수들을 위한 선수촌은

썰스부르그는 몇 년 전부터 해마다 겨울이면 스키를 타기 위해 방문하고 있고, 여름에도 가끔씩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다.

그런데 한국의 평창이 썰스부르그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한다니?

이 소식만으로도 필자는 발전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평창이 올림픽위원회 위원들에게 썰스부르그보다도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필자에게는 설마? 하는 느낌이 들도록 충격적인 것이었다.

물론이고 관중들을 위한 숙박 시설들도 하계 올림픽과는 달리 난방이나 온수 공급 등에 있어 수준 높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의 평창이 동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술과 자금 등의 여건을 갖추고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와 경쟁을 한다고 하니 한국의 발전에 그저 놀랄 따름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소치에 밀려 다시 한 번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것에 실패했다는 소식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에 충분했다(실제로 러시아의 소치라는 곳은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두 번째 유치가 실패로 끝난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던지 얼마 전부터 강원도 평창이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세 번째로 다시 도전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하지만 평창이 이번에 동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다면 축하해야 할 일이겠지만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세 번씩이나 도전을 해야 할 만큼 여건이 충족되어 있는가, 또한 동계 올림픽 이후의 평창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도 냉정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지역을 소개하려고 한다.

여름에는 농부, 겨울에는 스키 강사인 짤스부르크 주민들

오스트리아의 서쪽 지역은 알프스 산자락이다. 그곳에 이미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인스브르그와 알베르그가 있고 이번 유치가 실패한 짤스부르크가 있다. 이 지역의 스키장들은 해발 2000미터에서 2500미터에 위치한 곳이 많다.

그런데 해발 2000미터가 넘으면 산에 큰 나무들이 자라기가 어렵다. 한라산 백록담 주변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한계로 인해 작은 관목 숲이나 목초지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여름에는 소들을 방목하여 기르고 겨울에 눈이 오면 스키장이 된다.

과거 동계 유니버시아드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덕유산 산자락을 파헤친 것과 같은 환경 훼손이 필요 없는 곳이다. 다만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폭 십여 미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할 뿐이다.

또한 여름에 산 위로 올라가기 위한 등산로가 겨울에는 스키를 타고 내려오

는 길이 된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데에 서너 시간씩 걸리는 곳도 많다. 또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수십킬로의 크로스 컨츄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겨울에 오스트리아는 동계 스포츠의 메카이다. 10월 중순부터 부활절이 있는 4월경까지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많고, 겨울 시즌 내내 종목별로 유럽 선수권 대회가 곳곳에서 개최된다. 스키 활강이나 스키 점프 그리고 사격과 스키가 결합된 바이애슬론 등은 TV의 스포츠 채널에서 겨울 내내 쉽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또한 2월에는 스키 방학이 있어 이때에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온 차량들도 스키장 주변 도로가 꽉 막히고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호텔에 숙박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걸음마를 익힐 때부터 스키를 타기 때문에 대부분이 스키를 잘 탄다. 그래서 여름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겨울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스키 강사가 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겨울 시즌 내에는 호텔이나 상점, 식당 등에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담아 놓았던 스키장 곳곳의 식당을 열고 케이블카나 리프트에서 표도 판매하고 리프트 관리도 하는 등 연령이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다.

겨울 시즌 동안 찰스부르그에 있는 스키장 주변의 호텔에 가 보면 같은 호텔을 몇 년 동안 계속 찾는 사람들이 많다. 20여년을 해마다 같은 지역, 같은 호텔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이 사람들은 호텔 사람들과 가족같이 지낸다.

그런데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가 있으면 그 지역이 혼잡해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돌릴 수도 있다. 단골 손님들은 물론 다음 해나 아니면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곳을 다시 찾겠지만, 호텔이나 식당 주인 입장에서서는 그런 것을 손님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치른다 해도 금전적으로는 크게 이득이 날 것이 없다.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와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동계 올림픽 유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평창 주민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걸음마를 익힐 때부터 스키를 타기 때문에 대부분이 스키를 잘 탄다.

그래서 여름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겨울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스키 강사가 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겨울 시즌 내에는 호텔이나 상점, 식당 등에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담아 놓았던 스키장 곳곳의 식당을 열고 케이블카나 리프트에서 표도 판매하고 리프트 관리도 하는 등 연령이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은 열광적으로 유치위원들을 환영한 반면 쾰스부르크 주민들은 시큰둥해 한 것이다.

평창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평창이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서 선정이 된다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먼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역 내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시킬 수 있고 모든 종목의 동계 스포츠 경기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일회성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여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이후의 문제를 심각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온갖 종류의 경기장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간다. 실내 아이스링크나 스키장 등은 그나마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스키 점프대나 봅슬레이 경기장 등은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물론 올림픽 이후에도 각종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여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유명 선수들이 참가할 정도의 대회를 유치하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미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캐나다나 미국에서 대회가 자주 열리지 못하는 이유이다.

또한 얼마나 많은 외국 사람들이 관람을 위해 평창을 찾을 것인지에도 의문이 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럽에서는 겨울 내내 각종 대회가 열리고 유명 선수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 한국까지 가서 관람을 할 필요가 없다. 이를테면, 양궁이나 태권도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유명 선수의 경기를 보고자 할 때에는 굳이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해마다 열리는 전국체전이나 대표 선수 선발전 등에서 최우수 선수들의 기량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만약 평창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올림픽을 유치한다 하여도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평창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엄청난 돈이 들고 이후의 전망이 불확실한 올림픽 유치

를 과감히 포기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평창의 지역 여건이 동계 스포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 적절한 투자를 유치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스키장을 확충하여 국내 레저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 짤스부르그 지역을 벤치마킹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짤스부르그 지역은 스키장에서 스키만 타는 것이 아니다. 저녁 4시면 어두워지고 리프트가 멈추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숙소로 돌아온다. 그래서 고객들이 지나간 저녁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많고, 호텔이나 식당은 그들 나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스키나 스노보드 등의 손쉬운 임대는 물론이고 아이들과 초보자를 위한 스키 학교와 개인들을 위한 레슨도 시간, 날짜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스키 도우미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프로그램만 다양하게 준비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차피 올림픽 이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 될 것은 볼을 보듯 뻔한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 불필요한 시설들을 지어야 하는 올림픽을 유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광고 수입과 방송사에서 받는 중계료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올림픽 이후 남겨질 환경 훼손과 시설들을 고려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기후 변화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6년 겨울에는 유럽 지역에 눈이 내리지 않아 짤스부르그 지역에서는 선수권 대회를 위해 만년설이 있는 곳에서부터 헬리콥터로 눈을 퍼 오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앞으로 8년 후에는 온난화가 더 진행될 것이 확실한데, 만일 올림픽 기간 동안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눈을 가져올 것인가? 러시아에서 수입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

민약 평창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올림픽을 유치한다 하여도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평창의 지역 여건이 동계 스포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 적절한 투자를 유치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스키장을 확충하여 국내 레저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짤스부르그 지역을 벤치마킹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